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영면...수습 속도·수사 본격화

52명 유류품 유가족에 인계...시신 인도는 총 34구
시신 봉합...경찰, 무안공항·제주항공 등 압수수색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닷새째인 2일 희생자 중 일부는 영면에 들었고 유가족에게는 유류품이 처음으로 전달됐다. 유가족에게 인도되는 시신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등 참사 수습에도 속도가 붙었으며 수사 당국은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2·3·7면

◇유류품 가족품에...눈물의 첫 발인 국토교통부와 전남경찰청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무안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류품 200여점에 대해 소유자를 확인했다"며 "정오부터 유가족들께서 인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지대로 유가족들은 참사 현장을 다시 찾아 식구들의 유류품을 받아왔다. 참사 이후 유류품 반환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후 3시30분 기준 희생자 52명의 유류품이 유가족에게 인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류품 인도는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희생자 직계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만, 수사 당국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참사 당시 상황이 사진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유류품에 대해선 유가족 동의를 받아 포렌식 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중 첫 발인식도 이뤄졌다. 이들의 시신은

◇34구 인도...시신 조각 봉합 시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사 당국으로부터 의뢰받은 시신에 대한 DNA 검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인도되는 유해도 늘고 있다.

전남청과 국토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참사 희생자 179명 중 총 34명의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됐다고 밝혔다. 또한 1차 수습한 시신 조각 606편에 대한 DNA 검사 결과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돼 현재 유해들을 희생자별로 모아 맞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해의 봉합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유가족에게 개별 통보하고 인

도 의사를 밝힐 경우 곧바로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신 봉합 작업이 언제 마무리되는지는 유가족의 질의에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해를 구했다.

나원오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은 "후속 수습 작업을 통해 발견한 시신 조각이 늘어나는 중인데 희생자들의 유해 훼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모든 검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려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는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강제수사 착수...출국금지 조치도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수사본부를 꾸린 전남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무안공항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영장을 발부받은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인 만큼 사고 원인 및 책임자 규명을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은 참사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 받은 교신 내용, 사고기 정비 이력 등 자료,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로컬라이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중요 참고인인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유가족을 향한 유언비어와 악의적 댓글 등 총 4건에 대해서 입건했고 모니터링을 통해 12건의 게시물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특별취재반=안재영 기자



방위각 시설 '둔덕' 조사 2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활주로 끝에 설치됐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의 기반이 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된 방위각 시설의 둔덕과 관련해 전국의 공항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취재반=김애리 기자

'내란 수괴' 윤석열, 헌법·법률에 정면 도전

尹, '극우'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 메시지
박찬대 "관저서 지내며 내전 선동, 즉각 체포해야"
혁신당 "내전 획책"...이준석 "비통해, 즉각 하야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해 자중하기는커녕 '극우' 지지자들을 자극해 내전을 선동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서에 여러 차례 불응해 온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

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구 한남동 관저앞에 모인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협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현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에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서명한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관계자 편으로 집회 현장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체포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될 것"이라며 "공

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됐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은 관저에서 지내며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 등도 내란 수괴 옹호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박 원내대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 수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야 합의로 내란 사태 국정조사 특위

를 출범시켜 놓고 정작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의결에 반대하는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게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새해 첫날부터 반성대신 분열과 선동을 자행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의 막장이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내란도 모자라 내전을 획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변인은 "내란수괴의 체포영장 집행을 머뭇거리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민의 새해 첫날의 바람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이다. 내란수괴의 막장 드라마를 일분일초라도 빨리

Today

현재,尹탄핵오늘 2차 준비기일 4면

'그린 국악' 가치에 같이들... 15면

손흥민, 토트넘 떠나나 '축각' 16면

기부로 나를 가차있게 광주전남을 가차있게!

성금접수 계좌

광주 사랑의 열매 : 053-107-99990 (광주은행)
광주시회복지공동체모금회

전남 사랑의 열매 : 301-4000-3000-01 (농협은행)
전라남도공동체모금회

SAMSUNG

2025

미래로 함께 가는 2025년

모두가 꿈을 이루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한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삼성엔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동행하며 함께 희망을 키워갑니다

항공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